

[충남일보가 만난 사람]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 “대전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겠다”

✎ 김현수 기자 | ⓒ 승인 2025.07.02 09:16

‘시민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는 일’에 집중
대전·충남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대전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시문제 중 하나로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활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경제지표나 행정적 수치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삶과 문화, 공동체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도시는 단지 건물과 도로로만 구성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흐르는 '경험의 장'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다. 과거의 디자인이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적 미려함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디자인은 도시의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고령화, 범죄, 환경, 청년층 유출, 저출산 같은 복합적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으로써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있는 기관으로 지역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전체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과거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하며 도시정책과 지역 미래전략을 다뤘고 도시안전캠페인을 통해 대전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으며 최근 막중한 과제를 안고 대전시 산하 기관에 취임한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을 만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과 나아갈 방향 그리고 그가 구상하는 '행복한 대전'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전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얻게 돼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지난 2010년 대전발전연구원장 시절에 구상했던 도시의 밑그림을 이제는 현실로 완성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다. 디자인은 단순한 미적 행위가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행복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임기를 통해 '시민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

행복한 대전이란 건강하고 안전하며 사랑이 넘치고 여유로운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버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도시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넛지디자인 전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 '넛지'는 강제적인 규제나 감시 대신 자연스러운 참여를 끌어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DIDP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원로 22(탑동)
T. 042-930-7813 W www.didp.or.kr



일류 경제도시 대전
명품도시 대전 미래를 보다

지속가능한 Design

Design

세상을 향한 >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공디자인 도시문제해결형, 시민 삶의 질 향상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리빙랩

산업디자인 디자인 융합 상품개발, 지역디자인 인프라
디자인 애로사항 컨설팅

디자인인력 청년 디자인너 육성, 지역특화산업 연계,
현장 밀착형 디자인 교육

-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어떤 곳인가.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020년 7월, 충청권을 아우르는 디자인 전문기관으로 출범했다. 대전 지역의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그 첫 번째 역할이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현재 대전에는 크고 작은 디자인 업체가 800여 개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업체이고 인건비 총당조차 쉽지 않은 구조에 놓여 있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 디자인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진흥원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디자인 인력의 고도화에 힘을 쏟는 동시에 공공디자인 사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 디자인 생태계에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들의 디자인 실력이 축적되면 기업들이 수도권 업체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 진흥원이 추구하는 비전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우리의 비전은 '행복한 대전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디자인을 통해 대전이 안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

대전의 주요 도시문제는 저출생과 인구감소 그리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다. 이로 인해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도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지는 도시로 디자인하고 싶다. 예컨대 대전이 아이 키우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설계된다면 젊은 부부들이 출산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대전이 젊은이들에게 '재미있는 도시'로 인식된다면 청년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확대하고 스카이라드 같은 도심 공간에 디지털 기반의 첨단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 대전이 추구하는 '일류경제도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대전이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제품 개발 후반부, 즉 디자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뿌리산업은 자체적으로 디자인 역량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디자인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높다.

진흥원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덕특구의 기술 성과물에 지역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디자인을 입힘으로써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산업과 인력의 디지털 전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디자인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진흥원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 왔다. 걷기운동, 안전캠페인, 범죄예방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걸어왔다. 특히 한국걷기운동본부에서는 오는 10월 대청호오백리길에서 걷기축제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동안의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안전디자인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부문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진흥원의 정책 실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앞줄 가운데)이 취임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디자인진흥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써 마지막 목표는.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왜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전과 충남은 머지않아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대전과 충남이 처한 현실은 상당히 명확하고 분명하다.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일이며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와 지역총생산 면에서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기반이 조성된다.

무엇보다 통합으로 250여 가지 행정 특례가 적용되고 연간 약 8조 원의 추가 재정이 확보가 예상된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대전·충남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잇는 교통망도 구축할 수 있으며 특히 저성장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전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통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다.

- 끝으로 대전시민과 충남일보 독자들에게 한 말씀.

충남일보는 언제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가장 먼저 발굴하고 그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언론이다. 항상 충남일보에 감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충청권 전체가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제는 행정기관이나 기관만이 아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한 디자이너가 되어 한다.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디자인도 정책도 완성된다. 함께 걷고 고민하며 같이 만들어가는 '대전'의 중심에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



김현수 기자 tims@hanmail.net